

## ‘전남형 만원주택’ 가시화... 210호 건립

고흥·보성·진도·신안 공급...월 1만원 임대료 최장 10년간

전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 감소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김영록지사의 발표 이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보성·진도·신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4개 군에는 단지별로 전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모두 210호가 건립될 전망이다.

이번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와 보육·판매시설, 주민편의 시설 등 입주청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주요 선정 원인으로 꼽힌다.

으로 꼽힌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 관광 종사자, 순천대 글로벌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와 신안은 섬 지역 숙박형 국내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요 증가와 수산업에 대해 귀어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비, 광역소멸기금 등 2843억원이 투입된다.

최초 거주 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보다 2년 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월 임대료를 1만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호 기자



투표용지 검수 작업하는 선관위

제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비례대표후보 투표용지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

## 대만 7.2 강진에 최소 7명 사망

최소 700여명 부상...가옥 붕괴·건물 기울어

3일 오전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적어도 7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연합보와 TVBS 등에 따르면 지진으로 화롄현 쑤화공포와 타루계 공원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등산객 3명이 낙석에 맞아 목숨을 잃고 40여명이 부상했다.

또한 화롄현 슈린항에서 산책을 하던 1명이 낙석에 깔려 숨지고 화물차 기사가 현지 절벽 옆 도로를 지나다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숨을 거뒀다.

화롄 시내에서 5층과 9층짜리 건물은 1층이 무너지고 나머지 층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졌다.

학교에선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고 노란색 안전모를 착용시

켰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낙하물에 대비해 교과서로 몸을 가린 학생도 있었다.

쉬펑웨이) 화롄현장은 관내에서 가옥과 건물 43채가 파손했으며 이중 4채는 완파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외에도 98명이 다쳤으며 무너진 가옥에 갇힌 1명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숨겨졌지는 아직 불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화롄의원 등 병원 3곳으로 옮겨 치료 중이라고 한다.

수도 타이베이에선 오래된 건물과 일부 신축 오피스 단지에서 타일이 떨어졌으며, 일부 건물 현장에서도 파편이 떨어졌다.

타이베이 전역에서 지하철 운행은 잠시 멈췄다가 재개했다. /뉴스

## 광주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시동

5년간 532억 투입...기반시설 구축·미래차 전환

LG이노텍·한국알프스, 자율주행 시스템 R&D 추진

광주시가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532억원여를 투입해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R&D)과 자율주행 성능평가 장비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통합제어시스템 국산화와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지역 선도기업(엔지니어)인 LG이노텍과 한국알프스가 맡았다.

두 기업은 자동차의 범퍼에 부착하던 ‘인지(센서)’를 자동차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해 탐지 범위 확대·정밀도 향상 방안을 연구하고 완전자율주행에서 운전관한이 기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응한 조향장치를 개발해 주행·편의·안전 등을 강화한다.

또 자율주행 중 교통 기반시설과 차량 간 통신에 활용되는 사물간통신(V2X) 통신모듈, 무선 송수신 등도 개발한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 국내 완전 자율주행(LV4) 상용화 목표에 따라

소프트웨어(AI)와 하드웨어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통합제어시스템 성능평가·인증장비’도 구축한다.

자율주행 핵심부품의 시험·평가·인증에 필요한 33종을 신규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166종의 장비와 광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하는 등 총 259종의 장비를 활용한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차 설계·공정·제조 등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교육을 실시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지난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인력양성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며 “지역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시도와

광역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자율차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0일 산업부가 주관한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자율차 부품 분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진곡산단에 부품생산 특화단지, 빛그린국가산단에 인증·완성차 특화단지, 미래차국가산단에 실증 특화단지 등 육성해 미래차 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전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2면
농블학교 222곳 늘어	3면
GGM 전기차 생산 준비 착착	4면

**Golf** 5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2개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 선정

**QED 골프아카데미 상무점**

**2022 QED BIG EVENT**

최대 50% 할인 혜택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 시  
**무료 레슨 체험**  
**골프장 60분 이용권**  
**주니어 골프교실 50% 할인 적용**

김넷과 상무점 '해운대 영무호텔' 숙박권 증정

500평 규모, 31개 타석  
 프라이빗 스튜디오  
 높이 180cm 대형 탁자  
 샤워시설과 사우나 구비

☎ 062)374-0088

**광주 유일 100m 트랙을 소유한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VIP MEMBERSHIP**  
 광주은행 / 기아자동차 / 영무토건 / 바로연 / 영무파라드호텔 / 신성모터스 벤츠 / U탑 유틸레스 / 시원병원 / 워더스 웨딩 / 압구정 제이엘의원 /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회원 본인 및 가족 20% 할인

**LOCATION**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64 영무에다움 상가 2F, 3F

**HOURS**  
 월~금요일 오전6시~오후12시  
 토·일/공휴일 오전8시~오후8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RESERVATION**  
 전 층용 파라드시티 어플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 이용  
 상세 내용은 어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Parade City

전국 최대규모 프리미엄 토탈센터  
**파라드시티**

**Fitness**  
 CALORIE BAR  
 DANIEDEL  
 THE 14DAYS

**Tennis**  
 Golf